

■ 괴운(槐雲) 칼럼



역사마을 하회(河回)와 양동(良洞)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작년 가을에 경상북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을 다녀왔다. 두 마을은 14~15세기에 조성된 대표적인 한국의 역사적 씨족마을이며, 2010년 7월 31일 브라질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두 마을은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양반문화가 끊임없이 영남지역에 서로 9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마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마을 입지인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유교 예법에 맞는 가옥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마을은 경북 봉화읍 유탕(酉谷: 닭길), 안동 내암마을과 함께 영남의 4대 길지(吉地)로 꼽히고 있다.

먼저 하회(河回)마을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있다. 하회마을은 이란 이름은 마을 주변 난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휘돌아 감싸 안고 흐르는데서 유래되었다. 마을의 동쪽에는 태백산에서 빠져나온 해발 271m의 주산(主山)인 화산(花山: 335m)이 있고, 마을 중심부에는 수령(樹齡)이 600여년인 느티나무가 있다. 하회마을은 고려시대 말에 허씨(許氏), 안씨(安氏), 그리고 류씨(柳氏) 성의 세 씨족이 살았다. 16세기 말에 류씨 가문은 유학자인 겸암(謙庵) 류운룡(柳雲龍)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西厓) 류성용(柳成龍) 형제를 배출했다. 17세기 말에는 허씨와 안씨 일가가 마을을 떠나면서 류씨 단독의 씨족 마을이 되었다. 하회마을의 집들은 마을 중심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배치되어 있으며, 큰 기와집을 중심으로 주변의 초가집들이 원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특징이다.

하회마을에는 '하회탈'로 유명하고, 서민들의 놀이였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선비들의 풍류놀이였던 '선유불불놀이'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하회마을 동쪽 4km 지점에는 병산서원(屏山書院)이 있고, 우리나라 전통 생활문화와 고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비교적

권태강 고문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전적지 순례

권태강 고문은 6.25 70주년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준) 초청으로 무공수훈자회 68명과 함께 한국전쟁 당시 경기 파주군 적성면 설마리 235고지와 인근 계곡에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벌어진 설마리 전투의 현장을 순례했다.

참가자들은 11월 11일 11시 UN군 참전용사들이 묻혀 있는 부산UN묘지를 향해 일제히 퇴행했다. 설마리 전투는 영국군 29보병여단 4000여 명이 서울로 향하는 중공군 63군 소속 7만여 명에 의해 전진을 나흘간 저지한 전투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 글로스터셔 대대는 전투 중 58명, 탈출 중 30명이 전사했다. 대대장 카네 중령을 포함한 나머지 530명은 대부분 부상을 입은 채 포로가 됐다. 포위망을 빠져나간 병력은 63명에 불과한 치열한 전투였다.

권태강 고문은 인터뷰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쟁에 참전했다.



별써 7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요즘은 국가개념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국가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리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생활속의 한방건강

마음이 커질까?

1. 알찬 마음

알찬 사람은 알맹이로 차있는 마음을 가졌다. 알맹이는 생명과 활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생명의 에너지는 그리 따스하지마는 아니나, 활력의 에너지는 따스하다. 사람은 사람사이에서 알차게 성장하고 발전한다. 물론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한다. 인간의 삶은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알찰 때, 그 존재의 가치는 더 높을 것이다.

알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력의 에너지가 사람사이에서 즐거움이나 고로움, 기쁨이나 슬픔, 건강이나 아픔 등을 함께 공유하거나 나눔을 할 때, 공유하고 나눌 때마다 더 알차진다. 알이 차면 점점 커진다. 그 알맹이가 사람의 마음을 넓게 키운다.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 간다. 그런 사람은 참 따스하다.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나의 마음은 알차게 되면서 커진다. 아, 쉽다. 어, 그런데 쉽지 않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모르쇠' 하기도 하고, 건성으로 듣는 척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내 안에 알맹이가 줄어들고, 나는 점차 차가워 진다.

2. 거룩한 마음

깊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눈 빛이 그윽하다. 그윽하다는 말은 진잔하고 은은하다는 뜻으로 유연함이 내포되어 있다. 완강하지 않은데 출렁거리지도 않는다. 그 깊은 마음은 그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이나 사물 등의 속을 깊이 또는 오래 동안 헤아림에서 생겨나고 자라는 마음이다.

우선 나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 나의 마음을 깊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 이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이를 더한다.

나의 마음을 가장 깊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고 스스로 말이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을 꼽아야 할 것 같다. 나아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내마음을 알게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내 마음

을까? 일본의 독도 침탈은 언제부터? 용감한 독도 지킴이, 안용복 장군, 대한제국, 위기에 처한 독도. 죽도의 날?! 아니, 독도의 날!



권희완(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이 깊어지는데...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게 하지? 소소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설명이나 주장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어렵다. 나눈다고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새 논쟁하고 있는 나를 본다.

나는 20여년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다. 나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과 인생의 여러 면을 가르쳤다. 그런데 나의 학생들은 얼마나 그것들을 알아들었을까? 얼마나 소음을 내뱉고 있었을까? 그래서 깊지 않은 내 마음이 내는 갈증에 때때로 목마르다.

3. 거룩한 마음

마음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넓어지고 깊어질 때, 그 마음은 거룩해진다. 거룩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본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의 얼굴 빛은 부드럽고 밝다.

나는 지금 '누구를 우러러보고 있나'를 생각해본다. 배우고 익힘에 스스로를 낮추며, 남에게 베풀에는 한발자국 더다가가 미소 짓는 K선배가 떠오른다. 한편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을까?'를 자문해본다. 괜히 했나보다는 생각에 스스로 겸연쩍다. 그런 사람의 주변에 가서 눈 맞춤이라도 해야겠다.

4. 마음의 전이

알찬 사람의 깊은 마음, 그윽한 사람의 깊은 마음, 거룩한 사람의 높은 마음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은 커질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이 부러운가?를 생각하니,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거야!"라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내가 이들을 관찰하는 순간, 관심을 갖는 순간, 이들은 나에게 와서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주제가 된다. 이 세상의 많은 존재와 현상 안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현실이 곧 나의 주된 현실이다. 그들이 나에게 다가와 스며든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며지는 것이다.

이는 동양의 음양론, 현대의 양자론과 겹주어도 답이 나온다. 음은 음인데 동시에 양이고, 양은 양인데 동시에 음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음양이 하나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너와 내가 하나이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우러르며, 그들을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하자. 내가 선택한 좋은 존재들이 내안에 스며들어와 하나 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도 자라고, 커져 있지 않을까?



이달의 책

독도 이야기

/ 권오엽

〈독도 이야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록에 근거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확인하는 책이다.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해 이 악기 형식으로 펴냈다. 우리 땅 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독도와 울릉도는 화산섬이야! 독도를 다스리게 된 우해, 시끌시끌, 혼란에 빠진 울릉도. 태양 속에 다시 하나가 되다. 우산국과 우해왕의 탄생, 대마도를 정벌한 우해왕. 우산국은 천하의 중심! 쉽지 않은 신라의 우산국 정벌기. 신라와 우산국이 합하다. 고려가 다스리게 된 우산국. 독도와 울릉도는 어떻게 불렸



을까? 일본의 독도 침탈은 언제부터? 용감한 독도 지킴이, 안용복 장군, 대한제국, 위기에 처한 독도. 죽도의 날?! 아니, 독도의 날!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인 저자는 1945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했다. 군산고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개토대왕비문과 동아시아의 천하사상으로 학술박사(學術博士)를 취득했다. 저서로 광개토대왕비의 신화 등이 있다.

■ 이달의 시

문상

/ 권원섭

빈소에는

수십 개의 조화

성벽처럼 줄지어 섰네

독서실장 같은 냉철한 상주

눈물이 메말라 속울음 흘리는 걸까

치매로 떠난 것도 아니란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곡성이 없다

지방도 없고

향도 없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이별법이가

입속에서 맴돌다 만 쓰디쓴 조문

— 곡쟁이라도 부를 일이지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 열두 번째 모임 가져



가 무려 100만원이 모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어 권계동 고문이 작성해온 회칙 초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회의 명칭(會名)을 '재안동파종회장협의회'라고 정했으며 연장자 순서에 따라 초대 회장에 권계동 고문을, 사무국장에 권기원 현 국장을 연임시켰다. 회장단 임기는 1년이며 내년 2021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을 오는 11월 17일 오전 안동종친회관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내용은 2021년도 안동종친회 주최 신년인사회 건과 기타 현안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불고기를 결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권기원 사무국장이 준비해온 송편 떡을 맛있게 먹은 후 내년도 달력 1부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죽기 전까지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한 재안동파종회장협의회는 오는 12월 17일 저녁 6시 내부 찬성회에서 모여 맹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보도부부장 권영완



권원섭 시인의 악력

경북 안동 출생, 중랑문화원 중랑문화대학 제4기 수료, 소정문화창작실 작가 수업, 소정문화 동인, 저서: '달팽이 날다'(공저)



사정공司正公 추향 봉행

